

# 함석헌선생의 삶과 사상

동서와 고금을 넘나드는 사상적 넓이와 깊이  
들사람 함석헌선생의 삶과 사상은  
우리시대 새로운 출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안 병 무

한국신학연구소 소장

송 기 득

목원대 교수·신학

대담한 날짜: 1989년 3월 2일 대담한 곳: 본사 회의실

## 들사람의 해방된 삶과 저항정신

송 오늘 이 자리는 한국현대사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이신 고 함석헌 선생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모의 정을 모으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 변함이 없었던 자유롭고 해방된 야인적 삶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말인 듯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야인적 특성을 알고자 한다면 역시 그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것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안선생께서 들사람 또는 야인으로서의 함석헌님의 삶에 대해 말씀해 열어주시지요.

안 나도 ‘들사람’이라는 말은 함석헌을 가장 잘 묘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일생에서는 오산학교에서의 10년간 교직생활이 직장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나마 오늘날의 ‘직장’이라는 개념과도 다릅니다. 일제의 탄압하에서 창씨개명을 거부함으로써 오산학교를 사임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또 종교적 삶에 있어서까지 웨이커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분의 평화에 대한 뜻을 나타내줍니다. 함석헌님은 그 어떤 체제나 틀에도

얼매이지 않고 모든 속박에 저항했던 야인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의 영역이 그만큼 넓고 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를 수 없을 독창적 사상과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송 저는 그분의 태생에서부터 야인적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1901년 3월 13일 평북 용천군 부라면 원성동, 일명 '사자섬'이라는 곳에서 말 그대로 '상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물 아랫놈들, 감탕물 먹는 놈'으로 자라났고 오산학교 시절에는 남강선생의 영향으로 '청산맹호'의 기백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단순한 야인이 아니라 강한 저항의 기백을 지녔음을 엿보게 하는 측면이지요.

안 '청산맹호'라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형적 구분을 바탕으로 할 때 평안도를 지칭한 것이기도 합니다. 혹 그분의 글만 읽고 강한 저항인의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직접 보면 호걸답다거나 용맹스럽다기보다는 여리고 지순한 양과 같은 성품을 지니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 저항의 모습은 어떤 전략이나 투쟁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순수와 자유로운 기질에서 자연히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맹할 수 있었지요.

송 그분의 조용한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심에 뚜렷하게 정의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비원칙적인 세력들에게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고, 순수한 원칙적 행동이 무서운 저항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일생에 우왕좌왕함이 없이 뚜렷한 한 길을 걸어오셨지요.

### 민중사관으로 역사를 꿰뚫어보다

안 그분의 생애를 크게 나누면 출생부터 해방까지, 해방후부터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그 이후부터 작고하시기까지 셋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938년 오산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조그마한 과수원을 경영하시다가 김혁선생이 운영하던 송산농사학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우회(鷄友會)사건으로



송기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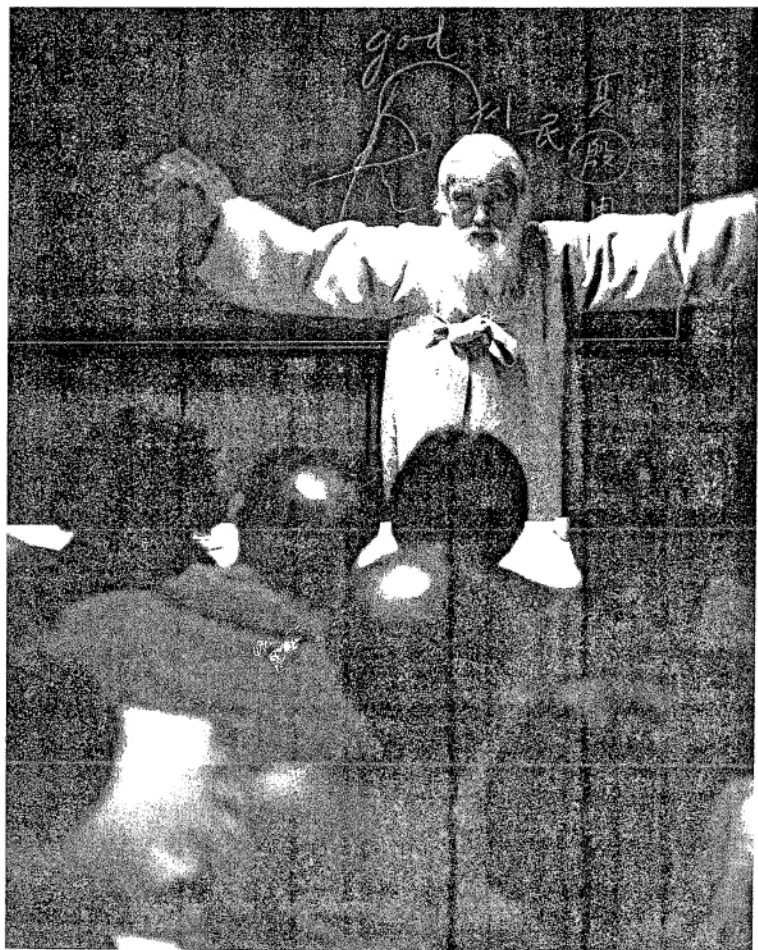
1940년 김혁 선생이 체포되자 그에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2년 『성서조선』 사건으로 다시 1년간 미결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구속되었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에 대한 의도를 가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제도적 기독교신앙은 거부했지만 당시만 해도 우치무라(內村監三)의 보수적 신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쓰여진 역사에 관한 글들 속에는 대단히 준엄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나타나 있던 ‘찬란한 역사’ ‘치욕의 역사’라는 수식어들은 모두 그릇된 허구임을 절실하게 느껴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고 마침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해방후에는 『뜻으로 본 한국사』 등의 유명한 책을 쓰게까지 된 것이지요. 30대 초반의 젊은 눈으로 당시 지배적이었던 왕권중심의 사관을 깨고 민중사관으로 역사를 꿰뚫어보았던 놀라운 역사인식이 현대 한국정신사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



안병무씨

다. 함선생님이 작고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최근 제가 그분의 글들을 죽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왕조중심의 타락한 사관을 비판하고 나서는 두가지의 핵심적 역사의식을 정리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배자중심의 연대기적 사관으로부터 벗어나 거꾸로 '반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는, 즉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 나아가서는 박해받는 자들에게서 진정한 민족혼을 찾으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평화주의자로서의 함선생을 생각할 때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달리 북벌주의자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점입니다. 자칫 북벌주의라 하면 무조건 팽창주의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무력적 측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본래적 자기'를 찾아야 한다는, 즉 고구려의 기개가 살아 있던 만주까지 그 활동영역을 되찾아야 한다는 북벌주의자들의 뜻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분의 야인적인 삶과 부합되는 것이지요.





씨움사상을 강의하는 함석헌 선생

송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납니다만, 조선족은 ‘밖음’만을 좇아 동방으로 이동하여 결국 한반도에 이르렀다는 설과 함께 조선족은 본래 ‘밖음’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전통사상이 있는데 함선생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북방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쫓기다가 밀려내려와 ‘주머니’에 갇혀버린 신세라고 일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지요. 이 말에는 들사람의 얼굴 제대로 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때 역시 그분의 역사의식 속에는 이미 들사람, 박해받는 자 즉 민중이 중심되는 사관이 자리잡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해방 전에는 드러나게 저항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적 사관을 뒤엎는 역사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고보 3학년 때에는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퇴학을 당하고 후일 복교되었지만 일본인이 드나드는 관립학교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민족사학 오산학교로 편입학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들사람의 얼굴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일류병’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개이지요. 그런데 해방후에는 신의주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으셨는지요?

안 신의주학생사건이 일어나자 그 책임자로 소련군 사령부에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이때의 50일간 감방에서 작은 종이에 써 내보내곤 했던 글들이 바로 시집 『수평선 너머』입니다. 처음에는 『신날』이라는 이름의 등사판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송 그 사건과 관련된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당시 소련 장교에 의해 형 집행의 일보직전까지 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뒤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도 형장으로 걸어나가는 모습과 그분의 인품이 조용하면서도 어쩌나 당당하고 결연했던지 소련장교가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 함선생님만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지요.

안 그분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오산학교 교사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만사에 능하다 하여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 ‘도깨비’였다고 합니다. 일제하의 울분이 격해진 데다가 사회주의 바람이 일면서 학생들이 성난 파도처럼 교무실로 밀려들어와 교사들을 난타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함선생님도 예외가 되지는 않았지요. 선생님은 그때 순간적으로 두 눈을 손으로 가

리셨다는데 그 이유는 당신도 한낱 인간이기에, 때린 학생의 얼굴을 보게 되면 후일 그 학생에 대한 미움이 일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화 속에 담긴 인간적 면모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자신을 늘 ‘바보새’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날아다닐 때에는 마치 하늘을 다 덮을 듯해도 자기 먹을 양식을 구할 주변머리는 없어서 갈매기가 먹다 남긴 것을 주워먹는 꼴에 빗대어 당신의 생활주변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월남하실 때에도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강한 권유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여러 친구들의 강권으로 고향을 등지고 월남하시는 중에 자나라는 수염을 깎지 못하고 그대로 두셨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선생님 수염의 내력이기도 합니다.

### “내 즐겨 낚은 종교의 이단자가 되리라”

송 월남 후 처음으로 찾아간 분은 유영모선생이라고 하지요?

안 1948년부터 매주일 YMCA강당에서 일요 종교집회를 두 분이 함께 시작하였고 후일 함선생이 독립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함선생님은 시를 읊기도 하고 한문도 풀이하고 또 노장사상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서풀이도 해 보이면서 두 시간 가까이 종횡무진으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구도자적 자세로 자신을 정리하는, 재출발의 계기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6·25가 발발하여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생활을 하면서도 이 종교집회를 계속하셨습니다.

송 저도 58년경부터 유영모선생의 소개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강연 내용은 사회적인 것보다는 실존적인 내면세계의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민중적인 것에 대한 저항의식이 자리잡고, 유영모선생의 영향을 받은 씨울사상이 이때부터 비로소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게 되었지요.

안 1953년에 쓰신 글 가운데 「대선언」이라는 중요한 시가 있습니다. 『수평

선 너머』에 실려 있지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기독교에 이단자가 되리라 / 참어야 어디 딴 끝이 있으리오/그것은 교회주의의 안경에 비치는 허깨비뿐이니라 /……참을 위해 교회에 죽으리라 /……그러나 내 영은 결단코 거기 간헐 수 없느니라 /……얼크러진 프로테스탄트 그물 동아시아 무사의 칼에 찍혔고 / 그리고 역사는 또 나갔더라 /……내 즐겨 낚은 종교의 이단자가 되리라” 이 글 속에 나타나 있듯이 ‘역사는 또 나갔더라’는 뜻은 루터교에 저항하여 무교회주의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무교회로부터도 또 탈출하여 나갔다는, 곧 저항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미 무교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후 1956년에 『사상제』에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를 발표하여 윤형중(尹亨重) 신부와의 유명한 논전이 벌어지게 되지요. 세인의 관심으로 떠들썩했던 첫번째 글이 된 셈이고 『사상제』의 지가(紙價)를 높인 글이었지요.

송 그후 1958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글을 발표하여 자유당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것으로 옥고까지 치르게 되시지만 비로소 야인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가 터지고 나서 그 숨막히는 암흑과도 같던 시기에도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비수와 같은 글을 발표하여 죽음으로 군사정권에 맞섰지요.

안 1958년의 필화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고문하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짖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고문하던 자가 “이 따위 글이나 썼다고 해서 네가 대통령이라도 될 줄 알았더냐” 하더랍니다. 이 말이 혹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릇된 심성을 가지지나 않았나 하는 자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고문하는 자의 말 속에서까지 깊은 자기성찰의 계기를 찾아내는 이런 일화는 일상적 사고의 틀로는 할 수 없는, 자유인 함선생만의 해방된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분이 글을 쓸 때는 스스로 현실참여의식을 갖거나 정식으로 정치비판의 장에 나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기왕 쓰려면 오로지 진실을 써야 한다는 신념에 따랐을 뿐이지요.

1962년에는 어떤 의도에서인지 미국무성이 그분을 초청하여 서구 나들이를



나서게 되었는데 3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곧 이어 10개월간 웨이커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독일에 머물던 중 한국에서 사실상의 군정연장인 민정이양국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분노하셔서 인도와 이집트 가려는 여행계획을 모두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셨습니다. 이때가 비로소 비장한 각오로 정면의 투사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전기라고 볼 수 있지요.

돌아오신 후에는 시민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어쩌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강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청중들이 밖에 운집해 있어서 후속 강연회를 다시 열 것을 약속하며 그 열기를 무마시켜야 할 정도였지요. 이어서 오산학교와 대광학교에서도 강연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래서 점차 함선생님은 정치현실의 전선에 이끌려 후퇴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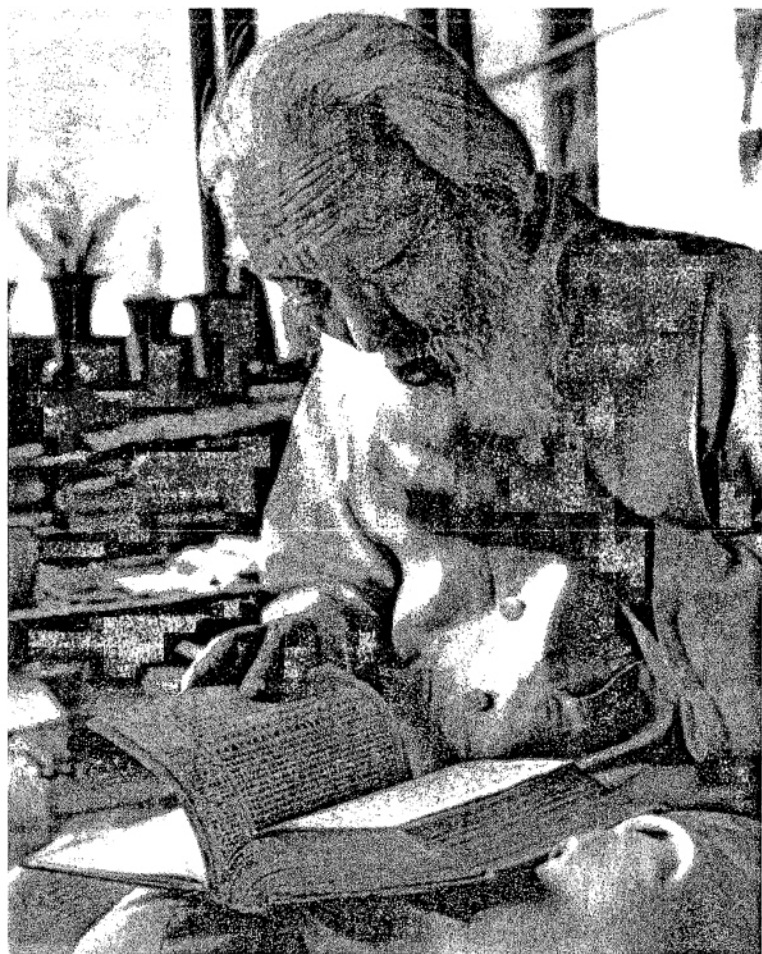
송 일부에서는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요. 함선생은 그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어쩌서 정치현장에 나서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선생님의 그때 속뜻은 가장 대표적인 악은 바로 사회악이라고 보았고, 달리 말해 이 구조악의 전형은 독재정권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정치적 뜻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요.

안 한 가지, 잘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말려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장준하씨와 관련된 일이지요. 장준하씨가 출마를 했는데 함선생이 지원연설을 하려면 입당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지요. 인천에서 처음 선거유세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천에 가는 도중 납치되었다가 벽력같이 화를 내어 풀려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장준하씨의 옥중출마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함선생 덕으로 그가 당선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언론의 암흑 속에 불꽃으로 남은 씨울의 소리

송 마침내 1970년에는 『씨울의 소리』 창간호를 내셨지요?

안 그 전에 『말씀』이라는 잡지를 몇번 내다가 못 내셨고 다시 시도하셨다가



생전에 서재에서 고전을 읽던 함석헌 선생

또 못 내게 되곤 했는데 그러다가 70년에는 침묵하는 언론현실에서 이른바 언론의 게릴라전을 펴겠다는 의도를 표방하고 『씨올의 소리』를 창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첫 호를 내고 2호가 나오자마자 정부로부터 인가취소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1년여의 투쟁 끝에 복간되었지만 1980년 결국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당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씨올의 소리』 하나뿐이었다고 봅니다. 기성 언론들은 모두 침묵하고 비겁해졌으니 자신만이라도 새까만 암흑 속에 불꽃으로 남아야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씨올’이라는 말은 곧 민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요. 함선생이 ‘씨올’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스승 유영모 선생이 『대학』강의를 하다가 민(民)을 ‘씨올’로 옮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참 순수한 인간, 때묻지 않은 인간, 삶의 밑뿌리라는 존재론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이야기되는 ‘민중’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송 물론 그 말을 쓰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맨사람’ ‘나(我)대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 인간생명의 본성 자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중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씨올’이란 지배자들에 의해 억눌리고 빼앗기며 소외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갖는 정치사회적 본질까지도 포괄하면서 『씨올의 소리』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안 ‘씨올’이라는 말의 개념 또는 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압축과도 같은 사회에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내세운 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정치성을 띤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곧 반독재투쟁과 다름없는 말이므로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도 크지요.

송 안선생도 함께 연루되었던 3·1 구국선언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안 그 전부터 이미 함선생님은 재야활동의 상징적 존재로 여러 일들을 해오셨지요.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 구성이나 전태일 추도회와 강연회, 민주회복국민회의 등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일익을 담당하시면서 함선생 자신도 71년에는 상당히 의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모

임을 주도하셨는데 하나는 간디를 기념하고 비폭력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였고 또 하나는 목숨을 내던진 전태일을 추도하는 모임 및 강연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76년 명동 3·1 구국선언에까지 이르게 됐지요. 계획적인 것이었겠지만 70세 이상과 여자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함선생님과 정일영·윤보선 같은 이들은 제외되고 모두 18명이 구속되었지요. 재판이 있던 토요일은 마치 정치재판소와 같은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두세 시간 남짓 볼 수 있었던 함선생님의 모습이었지요. 그분이 얼마나 투쟁적 의식이 투철했는가를 발견하고 무척 놀랐는데, 재판장에 삼베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냉엄한 표정으로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복을 입는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은 오늘 내가 어찌 상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감격적이었지요.

### 진정한 평화란 정의가 실현된 상태

송 함선생님의 삶과 사상은 평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에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함선생님은 평화를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은 그분의 저항정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사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함선생의 경우 저항정신과 평화추구정신과의 관계가 확연히 파악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 두 정신의 연계점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안 그분은 간디를 무척 사랑하고 그의 사상에 공명했습니다. 무저항이라는 것은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가장 강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치열한 지상요구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때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평화운동의 구체적 목표는 반폭력 즉 반독재일 수밖에 없지요. 독재정권은 결코 평화운동을 용납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반독재투쟁으로, 반핵운동으로 이어지고 독재권력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 함선생님의 사상에서는 저항과 평화라는 것이 아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이 함선생의 ‘평화’와 잘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은 역사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신의 모습은 정의와 평화라고 보셨지요.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다. 함선생의 저항은 바로 평화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함선생님이 지니신 평화와 저항이라는 두 모습은 결코 상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지금까지 함선생님의 야인적 삶의 모습과 씨울사상, 평화와 저항정신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총 20권에 달하는 선생전집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의 삶과 생각, 실천의 내용과 깊이가 참으로 방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만,

안 그분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분을 구시대의 사상가로 치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근현대사를 통틀어 사상가를 이야기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는 실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상의 폭의 넓음에서 함선생을 따를 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사상에서 노장사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 사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학자임을 자처하거나 학문적 체계를 추구한 것이 아닌데도 사상적 궤를 보면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그 기저는 기독교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결정적으로 영향받은 것은 노장사상이었습니다. 기독교와 노장 사이에 다리를 놓은 셈인데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요. 일단 동서 양쪽에 점을 찍어두고 기독교와 유교 더 나아가서는 노장과 간디, 그리고 힌두이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적 무대는 종횡무진 펼쳐졌습니다.

서구에 가보게 되면 늘 느끼는 점인데, 그네들의 큰 사상의 맥이 끊이지 않고 인물을 만들어내는 저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상의 올바른 전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철학사의 전통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그러한 전통이 약하지요, 한 위대한 사상가나 역사적 인물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전승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일이지요, 어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한 사상가의 사상적 편력을 담아내는 전집이나 연구작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풍토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도 함선생님은 우리 현대사상사를 새로이 열어가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폭넓은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사상은 없으니까요.

### 씨울은 역사의 담지자이며 주체

송 기독교와 힌두이즘, 노장사상 이들이 한데 모두 녹아들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궁무진한 사상의 주제들과 자료가 담겨 있지요, 어떤 한 가지 틀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적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사상적 통일에의 전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함선생님의 사상은 우리 현대사상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지요.

안 기독교 안에서는 신학하는 이들 중에 몇 명이 석사논문을 통해 그분의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 전체를 두고 볼 때, 그분의 폭넓은 사상세계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연구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의 사상이 만나 융화하고, 학문적 틀이 아닌 사회현실과 삶 자체의 긴장 속에서 새로이 탄생된 것이 씨울사상입니다. 서구적 시각으로 다듬어지고 이데올로기화된 기독교와 동양의 노장사상이 한데 융화했다는 것은 극과 극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독창적으로 생겨난 결과가 '씨울 사상'이라고 조명해보면, 씨울이란 결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민중도 아닙니다. 상당히 현상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것의 추구 사이에서 나온 것이 '씨울'이라 할 때 씨울은 현실참여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곧 씨울은 역사의 담지자이며 주체입니다. 또 '전체'라는 함선생의 사고

의 광장 속에 집결되어 형성된 개념입니다.

송 말씀하신 것과 연결지어 볼 때 씨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주성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가 곧 씨울이라고 하신 함선생의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씨울은 또한 ‘전체’를 실현하는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도 하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실현과정을 역사로 보고 그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인 국가주의나 집단주의, 독재정권에 맞서는 것이 ‘저항’이라고 보셨지요. 씨울 사상의 핵심인 자주성과 창조성은 역사적으로 통시성과 공시성을 갖는 보편사상의 기틀이 됩니다.

### 한국현대사상의 기틀로 새로이 조명돼야 할 함석헌사상

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씨울사상의 혁명성과도 연결됩니다. 혁명이란 비인간화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인간화시키고 본질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본성에 대한 낙관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요.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며 본질회복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장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저항의식이 담겨 있지요. 또 함선생만큼 통일을 간절히 바란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민족통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통일을 내다보셨는데 여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국가주의의 폭력이라고 보셨습니다. 또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민족주의의 소비니즘화를 철저히 경계하셨지요.

송 함선생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과 고난의 역사로 보신 데 대해 일부에서는 역사적 패배주의가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선생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그래서 함선생이 평화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한창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는 시절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한다는 비난도 있었지요. 정말 그분의 본뜻을 전혀 모르고 내뱉는 냉소적인 소리입니다. 함선생의 비폭력의 저항이라는 것은 ‘이미 이

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 비폭력입니다. 그것이 결코 패배주의나 염세주의가 될 수는 없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함선생님의 씨올 사상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적극 연구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 함선생의 사상 속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활로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뚜껑을 닫아보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가 함선생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함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충분히 다룰 수는 없겠고, 오늘 이 자리가 그분의 뜻을 기리고 학문적 연구의 첫발을 내딛는 기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